

세법개론

1.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과 관련된 규정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 ②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로서 납세자의 신청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최장 9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원칙적인 불복청구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는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후에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 포함)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경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③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면, 그 후에 무납부로 인한 납부고지는 확정의 효력이 없다.
- ④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때 납세의무의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과 불복청구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있다.
- ③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4.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후 납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직권충당 및 신청충당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한다.
- ③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②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④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출금금지요청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납액이 7천만원인 경우로서 미화 6만달러를 국외로 송금한 사람이라도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금금지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인 경우라도 체납액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출금금지요청을 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④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체납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다.

7. 거주자甲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거주자甲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거주자甲의 개별소비세로 징수할 금액은 얼마인가?

- | | |
|------------------------|----------------|
| ① 개별소비세(가산세 제외) : 80만원 | ② 교육세 : 20만원 |
| ③ 과소신고가산세 : 15만원 | ④ 강제징수비 : 20만원 |

- ① 45만원 ② 60만원 ③ 75만원 ④ 80만원

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1년 3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2021년 4월 3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2021년 7월 2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관할세무서장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골프장 또는 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반환의무 없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② 용역의 무상공급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③ 사업자간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차용 또는 반환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0.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②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
- ③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에 관련된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신탁설정일 이전에 국제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이 같은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 ㉢ 건설자급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익금불산입액
- ㉤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노조전입자의 급여액
- ㉥ 법인의 자산취득시 소요된 등록면허세의 손금불산입액
- ㉦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 ㉨ 장부를 기장한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13.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함)

- ①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이란 해당 승용차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임차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후 차기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추인한다.
- ④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② 법인이 결산상 건설자급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그 후의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추인한다.
- ③ 법인이 차입한 건설자급이자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해당 가산한 금액은 건설자급이자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1기 사업연도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제11기말 장부가액 10억원인 토지를 12억원으로 재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재평가차익 2억원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무조정 없음
- ② <손금산입> 토 지 200,000,000원 (△유보)
- ③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0,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토 지 200,000,000원 (△유보)
- ④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0,000,000원 (기타)
<손금산입> 토 지 200,000,000원 (△유보)

16. 다음 중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지급분 또는 국내송금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둔 날의 다음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183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④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7. 소득세법상 거주자(국외전출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며,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당시 소유한 주식 등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③ 국외전출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18.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을 지연지급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68세인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 ③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 ④ 원천징수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과세할 수 없다.

19.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파소신고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인정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일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평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②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③ 자산총액 중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65%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④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70%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